

육계농가 소득감소, 생산량을 증가시켜 만회하려면 더 위험해진다

□ 정리/김종준 기자



△ 초원농장 최원악

현 금 없이는 모든 생산자재를 구입할 수 없다시피 변화된 무신용 시대에 육계업계는 하루 하루 원료 구입과 현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생산한 생산물은 전반적인 국가경제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정리해고, 임금동결 및 삭감, 고물가 등 소비 악재 요인에 부딪혀 소비가 안되어 물량이 체화되고 있고, 생산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12월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어 자칫 애써 쌓아온 생산기반을 잊을까 염려되어 본 협회 육계분과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최원악 부회장을 만나 현 어려운 상황하에서 위기 극복 방안을 들어 보았다.

△ 현재 육계 사육에 대한 현황은?

▲ 지난 12월 중순부터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준 IMF 한파는 경쟁력이 약한 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주었고 그 중에서도 양계업계에 가장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료 원료의 재고가 1월 중순이면 바닥이 나고 환율의 상승과 외화 고갈로 원료 수입이 불가능해져 1월말부터는 사료의 생산이 중단된다는 루머가 확산되면서 일부 계열업체에서는 계약농가에 병아리 공급을 중단하고 일반 농가에서도 병아리 입추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료와 석유 가격이 계속 상승되면서 사료와 석유 구입시 현금 또는 초과 입금을 해야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닭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빚을 얹어서라도 사료비를 충당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농가는 조기 출하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에서 1월말이면 육계 산물의 품귀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유통업자들은 냉동 비축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병아리를 입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리하게 작용하여 어려운 형편에 부채까지 가중시키면서 병아리를 입추한 농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추를 중단했던 계열업체에서도 서둘러서 입추를 했는데, 이러한 사실은 12월에 생산된 육계와 종계의 사료가 전월과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사실이 그 상황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날이 악화 일로에 있는 국내 경기가 닭고기의 외식산업과 일반가정에서 닭고기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음으로 육계산물 품귀현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고 무리한 입추로 생산량만 증가하여 출하가격이 생산비보다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는 기간이 장기화될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 육계 출하시 농가에 지불하는 대금 결제 방법은?

▲ 최근 육계 대금의 결제 방법은 계열주체에서 거의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상인들이 중간 유통상인들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금결제 기간은 어음은 30~90일이고, 현금은 7일에서 45일까지입니다. 농가에서는 석유, 사료, 약품 등을 현찰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닭 판매대금 지불기일이 1주일까지 단축된 것은 좋은 현상이나 그 대신 현금결제시에는 시세에서 200원 정도가 할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원의 할인은 요즈음 시세로 판매가격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국유통협의회에서 생산자들에게 적용하는 육계출하가격에 대하여 생산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비에 비해 너무 낮은 가격이 오래동안 계속되는데서 오는 생산자들의 절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무리하게 출하가격을 끌어드는 것보다 시장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현상황을 극복하는데 빠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생산비가 높아지는 반면 출하가는 심한 기복을 보이는 원인은?

▲ 생산비는 산출 기준과 계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재 닭 1kg의 생산비는 약 1,500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1,500 : 1내지 1,600 : 1 일때 국내 육계생산비가 2,000원이 되면 통닭 기준으로 외국산 닭고기의 수입이 가능해 진다는 계산이라서 당분간 닭고기의 수입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료, 석유, 가축약품, 병아리 구입가격이 모두 가격상승 요인은 아직 남아 있어서 생산비를 높일 가능성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생산비가 고가인데 반해 출하가격은 점점 인하되고 있습니다. 큰닭 출하가격은 시세에서 100~200원 할인을 하여 판매되고 있고 하이도 100원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산지에서 출하하고자 하는 물량은 많아지고 도계장에서 주문받는 물량은 적기 때문에 생산지에서 물량이 체화되므로 유통(알선업자)들은 할인을 해서라도 닭 출하를 서두르고, 소비자에서는 소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입하는 물량을 줄이기 때문에 유통 흐름이 깨지면서 출하가격 진폭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은 육계생산자재 구매결제 방법이 현금으로 바뀌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 생산비 및 유통비용 증가로 닭고기의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소비위축의 해결방안은?

▲ 생산비가 높아졌다고 해서 금방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생산자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형성되고 있는데 시중 판매가격 즉 소비자 가격만 올라간다면 소비만 위축시킬 것입니다. 시중 대중음식점 음식값은 소비위축을 우려해서 판매 가격을 내리고 있는데 유독 외식 업체에서만 통닭값을 올린다면 소비자의 마음만 냉각시키고 소비 불안만 가속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통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줄이고 소비자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가정에서 손쉽게 밑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닭고기 식품 개발에 주력하여 소비량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또한 소비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 환율상승에 따른 육계업의 구조조정 방안은?

▲ 환율의 인상과 금융 위기의 대해 국민들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는 마음을 결집시키고 그 결집된 마음으로 뭉쳐진 공감대는 행동으로 옮겨져 여러분야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계업계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사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출하체중을 늘린다든가 사료급여를 줄이므로 영양 과잉 공급으로 생기는 닭의 복강지방을 줄인다든가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농가에게 그 방법을 공급하고 석유에 의한 열관리를 가스나 연탄으로 대체한다든가 그 밖에 전문적인 연구로 농가를 선도하고 농가는 스스로 외화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환율 시대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므로 양계산물 수입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양계산물 수출의 기회를 삼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생산기반은 이미 월 4천만수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계열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육계업자들이 꼭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 모든 양축가들이 평범한 상식으로 인정하고 실천해야 할 상황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생산조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이 모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적정한 생산은 오히려 낭비를 막고 절약하는 가운데 판매질서가 제자리를 잡고 대금결제도 정상화될 것입니다. 육계시장 구조가 정상화 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도 보호됩니다.

국내 경제의 현실속에서도 꾸준히 발전될 수 있기 위해 다같이 뜻과 힘을 모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양계**